

'지스타 2016' 오늘 개막

'모바일 대세' MMORPG 출품작 가득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넷마블 3종 · 넥슨 35종 준비... 일본 · 중국, 가상현실(VR) 게임 눈길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16'이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라'를 주제로 17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행사에는 35개국에서 653개 게임 관련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인 2719개 부스 규모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를 대표하는 넷마블게임즈는 5년만에 메인 스폰서 타이틀 자격으로 지스타에 화려하게 복귀한다. B2C부스(100부스)에 자리잡은 넷마블은 약 250여대의 대규모 시연대를 통해 모바일 게임 체험에 최적화된 부스를 구성했다.

넷마블은 올 하반기 최대의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리니지2 레블루션을 포함해 최초 공개 신작인 '펜타스톱', 스타워즈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 등 총 3종의 신종 모바일 게임을 선보인다.

특히 리니지2 레블루션은 원작의 콘텐츠를 고품질 그래픽으로 구현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게임 전반을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으며,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투 '요새전' 이벤트도 진행된다.

펜타스톱은 중국 텐센트 팀이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넷마블이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중국 출시 1년 만에 2억명이 넘는 유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넥슨은 창립 초기 슬로건 '라이프 비욘드(Life Beyond)'를 올해 지스타 주제로 정했다.

자체 개발 신작 18종(모바일 16종 · PC온라인 2종)과 퍼블리싱 신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 2016'이 17일 열린다. 사진은 지스타 2015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부산 벡스코 제전시장에 마련된 행사장에 많은 시민이 몰려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관람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

작 17종(모바일 12종 · PC온라인 5종) 등 역대 최대인 35종의 게임을 준비했다.

총 400부스의 넥슨관은 각각 150부스 규모의 PC온라인게임존과 모바일게임존, 다양한 신작 게임 쇼케이스와 대전 및 e스포츠 이벤트가 진행되는 100부스 크기의 '슈퍼 스테이지'로 마련한다.

넥슨은 '천애명월도', FPS(슈팅게임) '로브레이커즈' MMORPG '페리아 연대기' 등 다수의 신작 게임을 시연 버전으로 최초 공개한다.

슈퍼 스테이지 부스 외벽 공간에는 네오제(넥슨 콘텐츠 축제)와 넥슨 주요 게임 공식 굿즈상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프리미어 스폰서 자격으로 지스타에 참가하는 중국의 톈둥코리아는

3년 연속 지스타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소니)는 41종의 신작을 가지고 왔다.

여기에는 플레이스테이션4(PS4) 등 발매 예정 타이틀 18개와 플레이스테이션 VR(PS VR)의 주요 출시작도 포함됐다. PS VR은 PS4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VR기기다.

특히 귀신들이 등장하는 유명 호러게임 '화이트데이'의 후속작이자 VR게임인 '화이트데이: 스완송'은 현장에서 15분가량의 시연 버전으로 체험이 가능하다.

이번 PS VR 출품작들은 호러 장르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VR이라는 특성을 통해 이같은 장르를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뉴스시스

이외특설무대와 B2C관 100부스 규모로 참가를 확정했다.

신작 모바일 게임 4종, 가상현실(VR)게임 1종, 증강현실(AR)게임 1종 등 미공개 신작을 포함한 다양한 신규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기만화 캐릭터 '아톰'과 '레오'를 전면으로 내세운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아톰의 캐치캐치'를 출품한다.

내년 상반기 기대작으로 꼽히는 액션 RPG '히어로즈 오브 스키야렐름: 천공의 성'과 '나선경계선', '강철소녀' 등 모바일신작도 국내에서 처음 공개한다.

아울러 VR·AR존을 따로 마련해 격투소재 VR게임 '파이널포스'와 AR게임 '마이크로볼츠AR'를 시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내외 불확실성 동시 확대”

유일호 “필요시 단호한 시장안정 조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졌다”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금융·외환 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동향까지 살피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예상했던 성장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와 금리인상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경제도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수립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4차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나달 발표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 예정인 LNG(액화천연가스)추진 선박 산업과 병커링(연료공급) 산업도 언급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유류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LNG선박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2025년까지 국내 발주 선박 중 LNG선박의 비율을 10%로 확대하고 전세계에서 신규로 발주된 LNG선박 수요의 70%를 수주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유 부총리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상황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시장을 선점토록 LNG선박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LNG선박과 병커링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하겠다”며 “주요 항만 내 병커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와 인프라도 지속해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 체감형 과제를 별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쉐보레 '말리부', 올해 내수판매 3만대 돌파

한국지엠 쉐보레는 중형 세단 '말리부'가 올해 내수 시장에서 누적 3만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엠의 중형차 내수판매 3만대 돌파는 과거 지엠대우 시절인 2006년 중형차 판매 3만1895대 기록 이후 10년 만이다.

쉐보레 올 뉴 말리부는 지난 6월 본격 출고를 시작한 뒤 가솔린 중형차 시장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기준으로 국내 중형차시장 가솔린 모델 판매량에서 말리부는

60.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쉐보레는 이날 부평대리점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올해 3만번째 말리부 고객을 초청해 차량과 선물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데일 설리번 한국지엠 영업·서비스·마케팅부문 부사장은 “말리부를 향한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말리부의 뛰어난 제품력을 더 많은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다음뉴스에서 단독 기사를 모아볼 수 있다.

카카오는 16일 오전 '다음뉴스' 단독 기사' 섹션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이슈로 단독 기사가 많아지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뉴스 단독기사' 섹션 오픈

다음뉴스 단독기사 섹션은 날짜별·언론사별 단독기사 목록과 함께 해당 기사의 조회수, 댓글수, 공유수 등을 실시간 자동 분석해 보여준다.

단독기사 섹션의 첫번째 주제는 최순실 게이트다. 카카오는 지난 8월 20일부터 보도된 단독 기사 1070개를 섹션에 모아 보여주고 있다.

손정아 카카오 미디어 팀장은 “이슈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독 보도들이 실시간 뉴스에 파묻히지 않도록 그 가치와 영향력을 재조명하고자 했다”며 “주요 이슈에 대해 단독 기사 모음 섹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